

다이요전기(タイヨー電機) 홈페이지의 힘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大阪市北区菅原町11-10 オーキッド中之島ビル6階
- 분 야 : 전지전자제어 기기제조판매
- U R L : <http://www.taiyo-ele.co.jp>

2) 기업 소개

□ 독자 제품의 개발에 주력하다

- 다이요전기(タイヨー電機)는 고객사의 주문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, 납품하는 하청업체였으나 “탈·하청”을 목표로 2003년 이후 독자적인 기술개발과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으로 사업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
- 지난 2005년 7월, 자체 개발에 성공한 레이저식 결함검출장치를 발매하였고 창업 20주년을 맞이했던 2006년 봄에는 리소나 중소기업 진흥 재단에서 수여하는 중소기업 우수 신기술·신제품상으로 우량상을 수상하였음
- 회사를 창업했던 1986년부터 줄곧 대기업의 하청업체로 메카트로닉스¹⁾ 기술을 활용한 제품에 특화해 왔음

1) 메카트로닉스(mechatronics) : 기계공학(Mechanics)과 전자공학(Electronics)의 합성어로 '메카'는 기구나 기계요소 등의 기계기술을 의미하고, '트로닉스'는 제어요소나 신호처리 등의 전자기술을 의미한다. 오늘날의 자동차·항공기, 기계와 생산가공, 시험 및 계측을 비롯한 대부분의 기계와 공정들은 전기와 기계적 본질이 어우러진 복합체로, 기계·전자·시스템 등 한 어느 분야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. 따라서 메카트로닉스란 '기계기술'과 '전자제어기술' 그리고 '정보처리기술'을 응용하여 어떠한 목적에 적합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로 정의할 수 있음

- 그러나 글로벌화 진전과 경쟁심화로 경영에 위기감을 느끼면서 자사의 월등한 기술력과 혁신성을 바탕으로 지난 2003년 대담한 개혁을 단행하였음
- 즉 하청구조에서 탈피하기 위해 레이저식 결합장치와 함께 보유하고 있던 형광 검출장치, 진동 감지장치 등의 아이디어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응모하였음
- 그 결과 개발사업 인가를 받고 독자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창업 이래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하여 개발한 제품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음
- 또한 2004년에는 중소기업·벤처 종합 지원 센터를 방문하여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도 했음
- 그 이듬해인 2005년에는 레이저식 결합검출장치가 완성되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수많은 상을 수상했음
- 그러나 극심한 일본 내 경기 침체로 제품이 생각하는 것처럼 팔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청 업무도 줄어드는 창업 이래 최악의 경영난을 경험하기도 했음

□ 홈페이지를 활용한 영업 활동

- 위기 극복을 위해 고객의 관점에서 새롭게 사업을 점검하는 한편, 특히 영업활동을 전면적으로 수정했음
- 우선 자사의 홈페이지를 기존보다 보기 쉽고 사용이 편리하게 새로 제작하였으며, 포털사이트 검색엔진에서 좀 더 쉽게 노출될 수 있도록 투자를 했음
- 홈페이지 쇄신은 적극적인 전시회 출점 등과 맞물려 상승효과를 발휘했고, 홈페이지를 통한 주문이 전체 수주의 80%에 육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

- 고객이 스스로 우리를 찾아 준다는 희열감도 맛보았고, 좋은 물건을 만들면 알아서 팔리던 시대는 이미 지났음을 인식하며 마케팅의 중요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음
- 한편 새롭게 제작한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자사제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의견들 덕분에 기존 제품의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용도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기도 했음
- 또한 적극적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결과 형광 검출장치의 또 다른 용도를 발견하기도 했음
- 2006년 5월에는 본사를, 같은 해 12월에는 공장을 이전하였고 한 때 개발을 단념했던 형광 검출장치의 개발을 다시 시도할 수 있게 되었음
- 이 회사는 완벽한 장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고객이 그 제품을 원하는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

□ 일은 즐겁게

- 독자적인 제품 개발이라는 과제를 앞에 두고 오랜 기간 동안 하청업체로 안주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고 함
-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이고 호기심에 충만한 직원들의 도움으로 독자적인 제품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음
- 특기로 삼고 있는 레이저 기술을 활용하여 최근에는 자신의 얼굴사진을 도장으로 만드는 제품을 새롭게 출시하였고, 사장 본인의 얼굴로 만든 도장을 직원들의 출근부에 찍으며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음